

북스

어린이 책꽂이



▲포그 매직=해마다 미국 아동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품이 수여되는 '뉴베리 아너상'을 받은 줄리아 L. 사우어의 1944년 작품이다. 캐나다의 작은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안개를 통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평범한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게 한다. (어린이작가정신·9천원)



▲손안의 침새 지붕 위의 비둘기='오이 대왕'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작가 크리스티네 너스틀링거가 들려주는 유쾌한 성장 소설. 열한 살 여자 아이와 두 남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 시기 여자 아이들이 이성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이나 연애 감정을 솔직 발랄하게 표현하고 있다. (풀빛·8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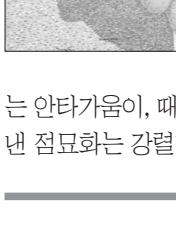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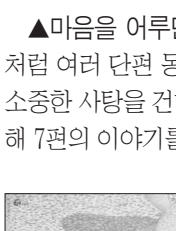
▲오늘 아침,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가 쓴 청소년 소설. 소녀 릴라비는 학교 대신 드넓은 바다를 간다. 그는 바닷가에서 먼 나라에 있는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실컷 수영을 하고, 마음껏 거닐며 시간을 보낸다. 사춘기 시기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묘사했다. (파랑새·8천원)



▲SOS 과학수사대 금개구리를 구하라!=과학 정보에 기반한 가상의 상황에서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학 그림책이다. SOS 과학 수사대는 오염된 환경속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금개구리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황소개구리와 굴착기 등 위험에 맞서 금개구리를 구출 작전을 펼친다. (아이들·8천원)



▲생각 깊은 초등학생을 위한 20인의 철학자 편지=동·서양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자신의 삶과 철학을 편지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준다. 어렵게만 느꼈던 철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있다고 말한다. (거인·1만원)



▲풀씨가 된 모래알="TV동화 행복한 세상"의 작가로 활동한 이미애씨가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따뜻한 그림과 함께 담았다. 직접 사막을 찾아 기적의 숲을 본 저자가 운율과 리듬감을 살려 써 때로는 안타가움, 때로는 희망과 기쁨이 묻어난다. 사막의 풍경을 그려낸 점묘화는 강렬한 인상을 준다. (파란자전거·9천800원)

계단의 역사를 통해본 서양 문명사

계단, 문명을 오르다 1·2

임석재 지음



건축사학자 임석재 교수(이화여대 건축학과)가 계단이 인류의 문명과 함께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풀어낸 '계단, 문명을 오르다'를 발간했다. 독특한 주제인데다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한 권에 다 담지 못하고 두 권으로 나눠 엮었다. 한 권은 '고대~르네상스', 또 다른 한 권은 '바로크~20세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계단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다 달랐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 계단은 인간과 초월적 존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신을 향한 수직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케 해

주는 도구였다는 것이다. 지구라트, 바벨탑, 피라미드는 그런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하반 인간 본위의 문화가 지배했던 그리스·로마에서는 그런 종교적 의미보다는 기능에 충실한 계단이 만들어졌다.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웅장한 계단은 사라지고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계단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여전히 신은 숭배의 대상이었지만, 그 신은 현저히 땅으로 내려왔고 그만큼 신전의 계단도 짧아졌다. 중세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권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다시 웅장한 계단이 도입되지만, 르네상스 시기에는 마침내 인간을 위한 계단, 예술로서의 계단이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 알베르티, 마르티니, 미켈로초 등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그 흐름을 이끌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경우 계단을 독립된 건축물로 사유하기까지 했다. 예술적 의미가 강조된 계단은 바로크 시대에 전성기를 맞았다. 바로크 전체 군주들에게 계단은 왕권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왕궁의 중심 공간에 크고 화려한 계단이 있었고 그 위에서 각종 의전 행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동주의를 필두로 한 탈권위주의 현상은 계단에도 영향을 미쳐, 계단은 절대 권력의 공간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탈바꿈해 도심 공원 속 노천 계단이 등장했다. 저자는 "엘리베이터의 등장으로 계단이 실용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의 계단은 더욱 자유분방하게 인간의 예술과 이념, 취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계단은 종교적 가치, 정치적 이념, 사회적 공공성, 경제적 욕망, 심리적 섬세함 등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문명 작용의 집합체"라며 "문명의 구성원이 계단을 통해 어떻게 소통, 교류했는지를 이 책에서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단순히 서양 문명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단과 건축 조형에 깃든 의미를 파헤치거나 개개의 건축물로서 계단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비평을 섞어 넣은 덕에 글이 딱딱하지 않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이 책의 미덕이다. 또 시대별로 나눈 장마다 당시의 계단을 현대로 끌어와 응용한 사례를 들어 과거와 현대를 잇는 의미와 현장감을 살렸다. <휴머니스트·각권 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발다사레 노이만, 아우구스투스부르크왕궁, 독일 브를, 1721~1732년.

천년역사 러시아 문화 집대성

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

이덕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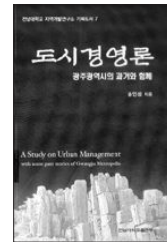


톨스토이의 문학과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아방가르드 미술, 성스러운 이콘, 동슬라브의 신화적 세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문화를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다. 성균관대 교수이자 소설가인 이덕형 교수가 출간한 '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은 저자의 20년에 걸친 러시아 연구 성과물로 뜨거운 역사만큼이나 매혹적인 러시아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웅장하고 화려한, 정적이고, 고요한' 러시아 문화를 다룬 이 책은 일단 규모에서 압도된다. 86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울퉁불퉁 제작해 돋보이는 수백장의 화려한 도판들이 눈길을 끈다. 책은 모두 1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러시아 문화의 개괄을 보여주며 2장 '자자나무 숲의 기억'에서는 동슬라브인의 신화적 상상력을 이야기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와 고골, 톨스토이, 체호프의 작품을 분석한 '성스러운 러시아의 정교 문화'와 보드카로 상징되는 러시아 민중 문화도 소개하고 있다. 책 말미에 연대표, 인명 찾아보기 등을 실었다. <생각의 나무·4만9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방정부 도시경영 문제점 지적

도시경영론 - 광주시의 ...

송인성 지음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송인성 교수가 '도시경영론-광주광역시의 과거와 함께'를 출간했다. 책에서 저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뒤 제4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영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도시 경영을 '최소의 시민부담으로 최대의 시민 총복지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도시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교수는 1부에서 도시경영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2부에서 5부까지는 광주시의 도시경영사례, 도시경영 관련 자신의 논문, 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6부에서 저자는 광주도시경영의 미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전망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송 교수는 (사)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대통령직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사)광주 푸른길 가꾸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부장을 역임했으며, '지역계획론', '지역개발론', '자치시대의 지역정책' 등 다수의 저서를 낸 바 있다. <전남대학교출판부·2만5천원>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죽음과 꿈에 얽힌 수용소 이야기

북쪽거실

배수아 지음



탁월한 심리 묘사와 개성 있는 문체로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 쓰기를 거부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배수아(44)씨의 신작 장편소설 '북쪽거실'이 나왔다. 2005년 '당나귀들'을 발표한 이후 4년 만의 장편인 셈. 이번 소설도 그 특유의 형식과 내용 파괴는 여전하다. 이야기는 국적도 방위도 알 수 없는 '수용소'에서 시작되어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고, 서사와 해석을 포기한 채 진행된다.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고 지면을 뽕뽕하게 채운 문장들, 꿈이나 환각처럼 모호한 이야기들, 극사실적인 묘사와 세부를 생략한 묘사가 상반되는 동안 이 낯선 풍경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안인지 밖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일인칭과 삼인칭, 전지적 시점까지 별다른 안내나 표시 없이 둔갑하는 소설은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식의 뻔하고 허탈한 이야기를 넘어, '꿈' 그 자체를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소설은 그녀가 추구하고 있는 죽음과 꿈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읽힌다. 하지만 과감한 실험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 그래서 그녀에게 접근하기란 용기가 필요할 듯하다.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여름까지 계간 '문학과 사회'에 연재된 내용을 엮은 것이다. <문학과사회·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062)227-9500
드림결혼정보
국내 호남과 서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보는 준비하는 지의 것입니다.
☎ 010-6790-5408
사/원/모/집
모집부원 모집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음료파트 남,여 0명 웨이터,웨이셔리스 신입 및 경력
그늘집 여 0명 판매담당 주부가들(40세 이하) 컴퓨터 활용가능자
▶전원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이메일 및 우편접수 가능
- 이메일 : mannerwang@hanmail.net
▶근무조건
- 4대 보험가입, 기숙사제공, 우수사원포함
- 경조금, 의료비지원
▶기타사항
- 경영지원팀 최관숙대리
- 연락처 : 081)320-7718
▶아름다운아이뉴스티 컨트리클럽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010-7219-7123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역 전국
규모 200KW이상
기한 2009. 10. 20
자금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상담문의 010-7219-7123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토지
▶담양 창평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남평읍(중흥스파입구) 16,810㎡ 매 4억5천
▶복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광산구 요기동 담 3,000㎡ 매 1억3천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무안군 일토읍(계획관리지역) 담 2,437㎡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기건들
▶용봉동(2층) 매 1억8천(보 5천/월 90)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고시동(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당
▶월산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펜션 부지회적
▶(담양,창평 생업종인)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흥부지, 담양인근무인텔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